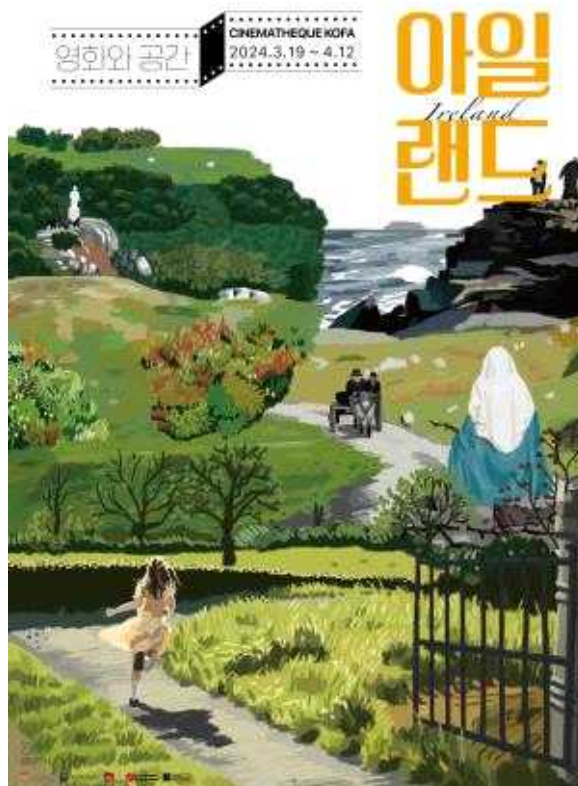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정책기획팀	담당자	여은정
이메일	ej_yeo@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64

보 도 자 료

존 포드의 <말 없는 사나이> 등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한 영화 18편이 한 자리에!

- : 한국영상자료원, 오는 3월 19일부터 ‘영화와 공간: 아일랜드’ 무료 기획전 개최
- : <코리아>, <떠오르는 태양과 마주할 수 있게> 등 6편 아시아 최초 공개
- : 짐 셰리단, 닐 조단, 마틴 맥도나, 레니 에이브러햄슨 등 아일랜드 대표 감독의 작품을 스크린으로



▲ <영화와 공간: 아일랜드> 포스터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오는 3월 19일(화)부터 4월 12일(금)까지 시네마테크KOFA(서울 상암동 소재)에서 ‘영화와 공간: 아일랜드’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아일랜드를 주요 공간으로 활용한 작품 18편을 상영할 예정이다.

‘영화와 공간’은 상징적인 장소로 영화를 통해 여행할 기회를 관객에게 제공하는 영상자료원의 정규 기획전으로, 금년 기획전에서는 아일랜드에 주목한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네마틱 아일랜드는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누군가는 아일랜드 분쟁의 역사를 탐구한 작품을, 누군가는 낭만적인 음악 영화를 통해 아일랜드와 사랑에 빠진 경험을 말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주제의 아일랜드 이미지가 ‘영화와 공간: 아일랜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게 펼쳐질 것이다.



▲콤 바이레드의 <말없는 소녀>



▲마틴 맥도나의 <이니셰린의 뱀시>

□ 아일랜드영화사 돌이켜 보는 기회

이번 기획전은 초기 할리우드 영화에서 아일랜드를 묘사하는 캐롤 리드의 <심야의 탈주>와 존 포드의 <말 없는 사나이>를 시작으로, 블랙 코미디 화제작인 마틴 맥도나의 <이니셰린의 뱀시>, 아일랜드 역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후보에 오른 아일랜드어 작품인 콤 바이레드의 <말없는 소녀>까지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하는 우수영화 18편의 영화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기획전은 고전 영화뿐만 아니라 최근 제작된 아일랜드 독립영화를 포함하고 있어 아일랜드 영화사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 메이킹 필름을 통해 현재 아일랜드 영화산업과 주목할 만한 아일랜드 영화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성감독이 연출한 최초 아일랜드 영화인 유리엘 박스의 <디스 아더 에텐>과 아일랜드의 대표 감독 팻 머피의 여성주의 작품 <메이브>와 <앤 데블린>을 통해 그동안 아일랜드 밖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감독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뜻깊다. 그리고 영국 출신 감독 켄 로치의 명작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도 이번 기획전을 통해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뮤리엘 박스의 <디스 아더 에덴>



▲팻 콜린스의 <떠오르는 태양과 마주할 수 있게>

□ 상영작 절반 국내 최초 공개, 한국 스크린에서 보지 못한 숨겨진 보석과 같은 영화 기획전에 포함된 상영작 18편 중 절반인 9편은 국내 최초 상영작이다. 그 중 다음의 6편은 아시아 최초 상영작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작년 BFI 런던영화제에 공개되어 극찬받은 팻 콜린스의 <떠오르는 태양과 마주할 수 있게>는 아일랜드 작가 존 맥가헌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아일랜드 시골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소한 삶의 소중함을 그린다. 카탈 블랙의 <코리아>는 한국전쟁이 아일랜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주제로 다루기 때문에 한국 최초 상영의 의미가 깊다. 그리고 <프랭크>와 <룸>과 같은 작품들을 통해 우리나라서 사랑을 받아온 레니 에 이브러햄슨의 데뷔작 <아담과 폴>도 개봉 2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데, 마약 중독자 두 명의 비참하면서 우스꽝스러운 하루를 다루는 블랙 코미디다. 이와 함께 숨겨진 역사 속 여성을 발굴하는 것에 대한 도날 포먼의 <그라뉴웨일의 외침>, 아일랜드 대표 여성감독 팻 머피의 <앤 데블린>, 더블린의 DJ 레ιβ 문화를 활기차게 보여주는 데이브 타이년의 <더블린 올드스쿨> 6편은 모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상영한다.

아일랜드 최초의 여성감독인 뮤리엘 박스의 연출작 <디스 아더 에덴>, 팻 머피의 <메이브>, 현대 범죄 정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명하는 프랭크 베리의 <마이클 인사이드> 또한 국내 최초 상영된다.



▲닐 조단의 <마이클 콜린스>



▲레니 에이브러햄슨의 <아담과 폴>

□ 스크린으로 만나는 아일랜드의 대표 영화감독의 명작

아일랜드 대표 영화감독인 짐 셰리단, 닐 조단, 레니 에이브러햄슨의 작품을 극장 스크린으로 만나볼 수 있다. 북아일랜드 분쟁을 다루는 짐 셰리단의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실화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현대사회에서도 아일랜드인이 영국 정부로부터 당하는 탄압을 보여주고 있으며, 배우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폭발적 연기력이 돋보인다. 아일랜드의 첫 블록버스터인 닐 조단의 <마이클 콜린스>는 아일랜드의 독립전쟁과 내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며, 아일랜드와 한국의 독립운동사 간에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어서 특히 감동적이다. 레니 에이브러햄슨의 데뷔작 <아담과 폴>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조명된 그의 두 번째 작품 <개러지>도 공개한다.

자세한 상영 일정은 3월 5일부터 영상자료원 홈페이지(www.koreafilm.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또한 관객들이 영화적 체험을 간직할 수 있도록 엽서북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영화와 공간: 아일랜드>

- 기간: 2024년 3월 19일(화)~ 4월 12일(금)
- 장소: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상암동 소재)
- 입장료: 무료
- 상영작: <떠오르는 태양과 마주할 수 있게>(팻 콜린스, 2023) 등 18편

[참고자료] 프로그램 개요

영화와 공간: 아일랜드

- 기간: 2023년 3월 19일(화) ~ 4월 12일(금)
- 장소: 시네마테크KOFA 1관
- 입장료: 무료

	제목	감독	제작년도	비고
1	심야의 탈주	캐롤 리드	1947	
2	말 없는 사나이	존 포드	1952	
3	디스 아더 에덴	뮤리엘 박스	1959	
4	메이브	팻 머피	1981	
5	앤 데블린	팻 머피	1984	
6	코리아	카탈 블랙	1995	
7	아버지의 이름으로	짐 쉐리단	1993	
8	마이클 콜린스	닐 조단	1996	
9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켄 로치	2006	
10	갈보리	존 마이클 맥도나	2014	
11	이니셰린의 밴시	마틴 맥도나	2022	
12	그란유에일의 외침	도날 포먼	2022	
13	아담과 폴	레니 에이브러햄슨	2004	
14	개러지	레니 에이브러햄슨	2007	
15	마이클 인사이드	프랭크 베리	2017	
16	더블린 올드스쿨	데이브 타이넨	2018	
17	말없는 소녀	콤 바이레드	2022	
18	떠오르는 태양과 마주할 수 있게	팻 콜린스	2023	